



산과 바다가 그리운 무더위속에 玉稿를 다듬는 손길은 바쁘기만 하다.

땀흘려 가꾼 作物은 勞力이 제공된 만큼 그 收穫을 保障받는다는 것은 不問可知.

우리 火協도 9個星霜을 정성들여 가꾸어온 보람 헛되지 않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精進 또 精進하여야 하겠다.

☆ ☆ ☆

포도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익혀짐으로서 다시없는 眞味와 향그러운 香氣를 발하듯이 우리 安全點檢誌도 火協人 모두의 두뇌를 바탕으로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끈기있게 다듬어 간다면 火協과 더불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.

☆ ☆ ☆

日常 바쁘신중 本誌를 위해 玉稿를 보내주신 林應極教授님과 李鍾律부장님을 비롯하여 防災役軍으로서 業務에 쫓기면서도 알찬내용을 써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. 編輯에 渾身의 힘을 쏟았으나 모은 이에의 기매에 부응할지 송구스런 마음뿐이다.

<永>

火災安全點檢《年2回刊》

(通卷 18)

登錄番號 바 520

登錄日 1973年 10月 11日

發行日 1982年 7月 1日

印刷日 1982年 6月 30日

非賣品

發行兼 李 大 鎔
編輯人

印刷人 李 南 亨

發行所 社團 韓國火災保險協會
法人

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-614

汝矣島 郵遞局 私書函 27號

郵便番號 11510-□□

電話 (782) 8111~8125

(783) 2121~2135

本誌는 雜誌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要綱을 遵守한다.